

# '빛고을 연등축제' 업그레이드

### 봉축기획단 첫선, 예산 5배 증액·대중적인 행사로

빛고을 광주가 4월 15일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봉축 점등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등축제에 들어갔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해향, 이하 광주사암련)가 주관한 이날 점등식에는 백양사 주지 두백, 선암사 주지 상명 스님을 비롯한 지역 사암 스님과 박준영 전남 도지사, 유태명 동구 정장 등 지역기관장, 시민, 불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5월 15일 부처님오신 날까지 한 달간 광주시

발하게 될 봉축물은 9m 크기의 대형 조형물로 아기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을 알리며 360도 회전하도록 되어있다. 설렁했던 예년과 비교해 참석인원이 크게 늘고 조형물도 훨씬 나아졌다.

이처럼 금년 광주지역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는 예년과 달리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 6색 전통등·특설무대 대규모 제등행진 등 '함께하는 축제' 구상

다. 지난해 새로운 회장단을 구성한 광주사암련이 대대적인 변혁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화의 중심은 대폭적인 예산 증액과 봉축기획단 출범.

광주사암련은 금년 봉축행사를 '빛고을 연등축제'로 명명하고 2000여만원에 불과했던 봉축예산을 1억원으로 증액했다.

특히 6명으로 구성된 봉축기획단은 서울 봉축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는 등 지역현실에 맞는 봉축행사를 위해 연초부터 봉축준비를 하고 있다.

봉축기획단은 5월 8일을 빛고을 연등축제의 날로 정하고 오후 6시30분부터 광주공원-금남로-도청 앞을 이르는 거리에서 축제마당을 펼친다. 또 빨강 주황 노랑색 등 6가지 색의 전통한지로 등을 제작해 광주 시내를 밝힐 예정이다.

각 사암에서 자체 제작한 반야옹선, 관음상 등 장엄물과 봉축기획단이 특별 제작한 사천왕상, 비천상 등 대형 장엄등을 내세워 광주에서 처음으로 전통적인 제등행진을 선보인다.

제등행진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될 대중 한마당은 전남 도청 앞에 특설무대를 마련하고 광주시민과 불자들이 어울려 불교예능 공연을 즐기며 부처님오신날을 함께 봉축할 예정이다. 글·사진/광주=이준엽 기자



4월 15일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봉축점등식 모습.

### '제주바라밀호스피스' 창립

제주에 불교 호스피스 단체가 창립했다. 사회복지법인 '총각'에서 운영하는 총각정사 주지 수상 스님과 20여명의 불자들이 구성된 '가칭'제주바라밀호스피스'는 4월 17일 제주장애인복지관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바라밀 호스피스가 펼쳐질 땐 활동분야는 간병봉사과 장의봉사. 바라밀호스피스는 창립 이후 곧바로 태고종에서 운영하는 치매전문요양원인 태고원과 제주양로원, 제주양로원 요양원 등 3곳 시설을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방문, 간병봉사를 한다. 또 제주치매전문노인병원과도 협의해 불교 호스피스를 알리고 활동무대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내 각 병원이 호스피스 요청이 있는 가정을 방문해 간병봉사도 하게 된다.

### 백양사 곡우다례 봉행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두백은 4월 20일 곡우절을 맞아 조사전에서 다례를 올렸다.

이날 곡우다례에는 전국에서 모인 문중 스님과 신도 등 200여명이 동참했다.

특히 이번 다례에는 고불총림 방장 수산 스님의 초청으로 조계종 원로의원 스님들이 모여 다례를 나눴다.

원로모임에는 종산(보살사), 지혜(대법사), 보성(송광사), 환안(전지암), 원평(관음사), 천운(대흥사), 동촌(해림정사), 진제(해운정사), 해정(법주사), 성수 스님(황대선원) 등이 참석했다. 이준엽 기자



지금, 우리 곁에서는...

### 서울 적조사

## 경산 스님 수행·업적 조명 한창



법당이 비좁아 비록 법당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밖에서도 법회에 꼭 참석할 정도로 신행에 열심인 적조사 신도들. 적조사는 신도들에게 신행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 울 초파일경 '조사당' 건립에 착수한다.

서울 성북구 둔암동 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적조사(寂照寺), 사찰 이름 그대로 고요함(寂)이 햇살처럼 비치니(照) 기도하기에는 그만인 절이다.

적조사는 꽤 유서깊은 전통사찰이다. 조선 헌종 15년에 창건돼 '염불관선(念佛觀禪)' 도량으로 수행과 기도 객이 끊이지 않았으나, 이후 불에 타 소실되는 아픔을 겪었다. 그러나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했던 경산 스님이 1977년 중창, 관음기도도량으로서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영험있는 기도도량이라는 입

족한 신도들의 신행공간은 새 건물을 마련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 대웅전(24평)과 관음전(30평)의 규모가 작아 법회 때면 많은 신도들이 법당 밖에서 법회를 봐야 하는 처지다.

특히 경산 스님의 수행과 업적을 조명하는 공간이 마련된다는 점이다. 경산 스님 유물관에는 경산 스님이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과 친필휘호 등의 유물이 전시된다. 경산 스님 유물관을 마련하는 이유는 은사스님을 제대로 조명해야 한다는 주지 자성 스님의 신

### '염불관선' 도량으로 유명...전국 기도객 참배 조사당·유물관 건립 통한 신행·문화공간 마련

소문이 퍼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기도객들이 찾아올 정도가 됐다.

그런 적조사가 '조사당' 건립봉사를 추진하고 있다. 200~250평 규모의 3층 건물로 지어질 조사당에는 대적광전, 지장전, 조사전, 경산 스님 유물관, 다원, 서점 등이 들어서며 울 초파일 전후로 공사에 착공해 2007년 완공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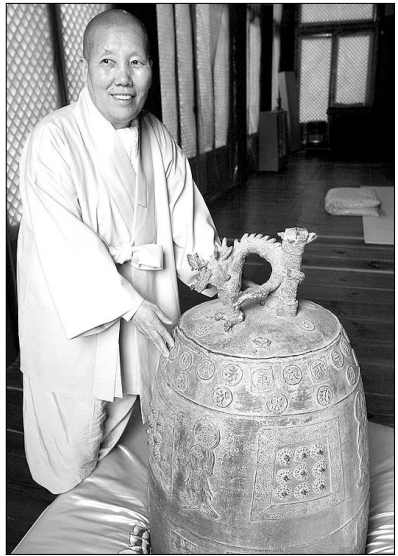
조사당 건립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는 신도들이 편안히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는 점이다. 적조사는 2002년 자성 스님이 주지로 부임하면서 조사전과 관음전이 수리복원하고 대웅전 기와복사에 이어 단청봉사를 진행하는 등의 사찰 정비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부

념때문. 은사스님을 제대로 예경할 만한 장소가 없어 늘 안타까워했던 자성 스님, 그리고 그런 자성 스님의 보은의 정을 알고 있는 신도들은 하루속히 조사당이 건립되길 바라고 있다.

"기도를 할 때는 진짜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고 해야 합니다. 그런 확신이 있는 신도들과는 언제든지 함께 기도합니다. 조사당 불사도 그런 마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성 스님은 조사당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불자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했다. 조사당이 건립되고 경산 스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자성 스님과 신도들은 지금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02)924-5362

한명우 기자



안심사 주지 일연 스님이 범종을 살피고 있다.

## 돌아온 범종 일제 전쟁무기 공출 6·25 화마 모면

### 60년만에 원주 안심사로 귀향

하마터면 일제의 공출로 전쟁무기가 될 뻔했던 범종이 60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와 증생구제의 범음을 내게 됐다.

원주 대둔산 안심사주지 일연은 최근 금산 보석사가 보관하던 안심사 동종을 이운하고 범종각 불사에 들어갔다.

이 종은 해방 전 전쟁무기용으로 공출되어 전국에서 수집된 고철과 함께 대전역 부근에 있다가 일제의 패망으로 화를 면하게 됐다. 해방직후 공출물품 담당자의 연락으로 당시 안심사 본사인 보석사 스님들이 인수해 보관하게 됐다.

### 일제 전쟁무기 공출 6·25 화마 모면

그 뒤 사중스님과 신도, 지역주민들은 보석사가 보관중인 안심사 종을 되돌려 받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60년을 보내게 됐다.

2년 전 안심사 주지로 부임한 일연 스님도 주민과 신도들의 요청으로 보석사를 찾게 됐다. "종을 처음 접하고 마음이 정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니 그날 밤 꿈에 종을 깨우고 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날부터 '종의 무사귀환'을 발원하며 기도해 들어간 일연 스님은 보석사, 교구본사 마곡사, 총무원에 눈물로 호소했고 얼마 전 종을 이운해 가려는 연락을 받게 된 것이다.

종이 오면 날, 안심사 대중들은 감격했다. 무려 60년 만에 돌아온 범종은 아무런 손상 없이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일연 스님은 "범종은 많은 이들의 신심과 원력으로 조성되었기에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이다"며 "안심사가 6.25때 소실되었는데 너무 일찍 왔어도 그때 화마로 사라졌는지 모르기에 피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심사 동종은 전체 높이 97cm, 지름 63.2cm 무게 370kg으로 종에 새겨진 명문에 따르면 1760년(영조 36) 조성된 것으로, 조선시대 범종으로는 보기 드문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연 스님은 "빠른 시일 내에 종각을 건립해 종소리를 울리도록 하겠으며, 관계기관에 문화재 지정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원주=이준엽 기자·사진=박재환 기자

## 'O·P밴드'입니다

(Okcheon Police)  
옥천서 윤왕근·한준희 경찰  
기타 메고 지역민에 연주 공연

4월 16일 오후 충북 옥천군 옥천읍 죽향리 옥향아파트 단지 내, 옥향아파트 주민들이

주최하는 빛꽃축제에서 7명으로 구성된 밴드가 공연을 하고 있다. 이들은 바로 옥천경찰서 'O·P(Okcheon Police) 밴드'. 2002년 결성돼 지역 행사 때마다 공연을 해 온 'O·P 밴드'는 이날도 프로급 못지않은 실력을 뽐냈다.

이들 가운데 눈길을 끈 사람은 리드기타를 맡고 있는 수사계 윤왕근 경찰. 고등학교 때 그룹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인지 연주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 그 옆에서 키보드

를 치고 있는 보안계 한준희 경찰은 밴드가 결성되면서 키보드를 배워 그리 능숙하지는 않지만 안정된 솜씨를 자랑한다.

이 두 사람은 옥천경찰서불사죄 회원. "불사죄나 밴드활동을 통해 지역민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니 오히려 감사하죠. 이런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도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명우 기자



공연중인 윤왕근(왼쪽) 한준희 경찰.

# 보우승가대학 학인모집안내

불교계 최고의 인재양성을 위한 본 대학은 최초로 출가도도를 원하는 분들을 위한 출가자(행자)교육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불교의 제반의식과 경전강의 및 특강반을 개설하고 유명 강사진으로 교수진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알찬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1 교육과정

교육과정/내용	강의내용	강의일자	지도교수	
출가자(행자) 교육과정	출가도도를 희망하는분 대상으로 기본교육 의식 습득 불공등을 집중강의하며 출가에 관한 모든것을 지도해드립니다	목, 금	본교 교수진	
경전연구과정	금강경, 원각경, 화엄경, 육조대장 선어록 등 대승경전등을 권위있는 교수님이 일반인도 쉽게 이해하도록 강의함	금	신규탁 연세대학교수	
의식교육과정	기본반	사물다루는법, 도량석 조성, 각단예불 불공 시식 축원 등 초심자도 어렵지 않게 접할수 있도록 함	목, 금	능해스님
	전문반	각단불공 시전, 대령 관속 시식 사십구제 천도제와식과 비라무 나비무등의 적법의식 을 집중강의함	목	능해스님
	연구반	상주권공을 중심으로 천도제, 방생, 점안 등 전문적인 의식을 위주로 심도있는 강의를 함	수	경허스님
특강과정	작법반	불교의식중 나비춤 나비춤 등 의식무를 배우고자 하는분을 대상으로 집중강의		도명정안스님
	호적반	불교의식 악기중 호적을 배우고자 하는분을 지도함	화	대해스님
	서예반	수행과 교화 취미활동에 도움이 되는 서예를 스님께서 직접지도 해드립니다	목	지홍스님
	생활역학반	이사택일 기초사주 공합등 기초적인 지식습득과 전문적인 인생캐슬링등을 지도해 드립니다	금	대각스님

- 2 장소 서울 종로구 창신동 원각사내 (주차장 안비)
- 3 개강일자 2005년 5월 3일(음 3.25) 오후 2시
- 4 모집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반명함판사진2장, 각반 30명 이내, 선착순접수함)
- 5 원서교부 및 접수처 본교사무처 - 전화 02)763-5213, 팩스02)747-92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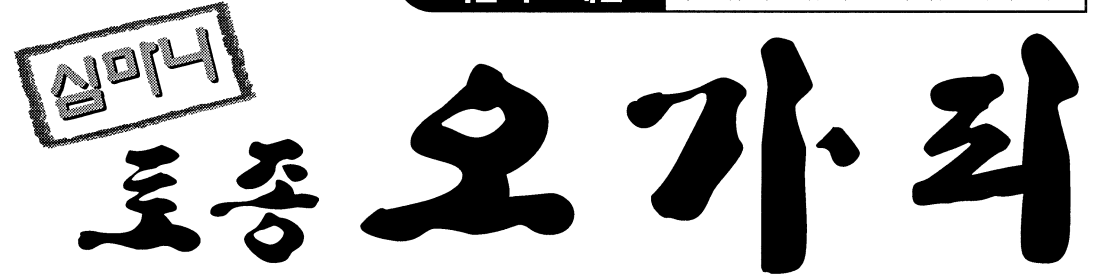
### 보우승가대학 학장 월봉 합장



## 이것이 명품이다!

연풍심마니 토종오가피는 자사 직영 농장인 포천, 영월, 홍성에서 직접 재배한 100% 국산 토종오가피와 경희대 한방연구소에서 배양한 산삼 배양근 원료를 ISO 9001 품질인증과 식품위생안전관리기준 HACCP에서 인증 받은 초현대식 시설로 원료에서 제조, 생산, 유통에 이르기까지 원통시스템을 갖춘 믿을수 있는 제품입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 시음 무료체험  
전화주시면 책자와 비디오예약을 심마니 토종오가피와 함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무료체험의 즐거움과 건강의 기쁨을 누리보세요.



현풍 토종심마니오가피 국내최초 여자프로 권투단 창단  
(주)현풍은 세계 주니어 플라이급 챔피언인 김주희 선수와 여자프로 우망주 손초롱 선수의 4명으로 출범한 현풍 프로권투단은 한국프로 권투발전기에 기여하겠습니다.

※국산토종오가피 목욕분양 및 상담※

상담문의 및 무료자료배송 02)447-9114

